

>> 다시 여행을 꿈꾼다

프랑스 산속으로 힐링 여행 떠나볼까

France

프랑스에는 자연을 만끽하며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악 여행지가 곳곳에 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산맥의 몽블랑, 80개의 화산이 빚어낸 뫼 산맥의 절경,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가 있는 피레네산맥.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맥을 따라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자.

글 김희선 기자

편집자 주 : '포스트 코로나' 여행지를 검색하는 손길이
비빠지고 있습니다. 연합 이매진은 해외 관광객들이
추천하는 각국의 여행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외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기획입니다.

La Chaîne des Puys en Auvergne

광활한 화산 지대 오베르뉴의 뫼 산맥

오베르뉴는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이자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자연 보전 지역 중 한 곳이다. 이곳에는 프랑스의 자연 박물관으로 불리는 오베르뉴 화산 지역 자연공원이 있다. 오베르뉴 화산 지역 자연공원은 40만ha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화산지대다. 숲, 산맥, 호수, 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다.

공원은 해발 400m부터 1천886m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산으로 이뤄진 뫼 산맥을 따라 이어져 있다. 1만1천 년 전부터 이어진 화산 폭발 과정에서 탄생한 80개의 화산이 비경을 연출한다. 뫼 산맥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고 싶다면 해발 1천465m의 '뫼드돔'에 올라가 보자. 다양한 형태의 화산이 연속해 펼쳐지며 빚어내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여름과 겨울 계절에 상관 없이 친환경 산악열차인 '파노라믹 데 돔'을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뫼 산맥을 만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열기구 투어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에서 길게 늘어진 능선을 감상하며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뫼 산맥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열기구 투어.
80개의 화산이 빚어낸 풍광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1

© G. FayetAuvergne-Rhône-Alpes Tourisme

November 2021



2

© F. CormonAuvergne-Rhône-Alpes Tourisme

- 1 열기구를 타고 내려다본 뫼드돔
- 2 뫼 산맥은 1만1천 년 전부터 이어진 화산 폭발 과정에서 탄생한 80개의 화산을 품고 있다.
- 3 오베르뉴 화산지역 자연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3

2012년 프랑스 자연 유산으로 공식 지정된 '뫼마리' 역시 뫼 산맥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뷰 포인트 중 하나다. 해발 1천787m의 정상에 서면 캥탈 지역의 산들은 물론, 저 멀리 알프스산맥의 몽블랑까지도 볼 수 있다. 해발 1천589m에 있는 '파드페이롤' 지점에서 등산로를 따라 30분가량 오르면 뫼마리 정상에 닿을 수 있다. 힘들게 정상을 오르며 쌓인 피로도 이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말끔히 날아갈 것이다.

오베르뉴 지역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화산 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산의 기능과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화산 놀이공원 '뵐카니아 테마파크'가 있다. 테마파크의 각종 놀이기구와 아틀리에, 공연 등을 통해 지질학적 지식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 F. CormonAuvergne-Rhône-Alpes Tourisme

www.yonhapimazine.com | 79



1

©JC Poirot Chamonix

Les Alpes

2

‘유럽의 지붕’ 알프스산맥 광활하고 다채로운 풍경 속으로

알프스산맥은 프랑스의 여러 지역과 인근 유럽 국가들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악 지역으로 면적 3만5천km², 길이 1천km를 자랑한다. 크게 북알프스와 남알프스로 나뉘는데, 북쪽으로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몽블랑을 비롯해 유명한 산들과 스키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샤모니, 쿠슈벨, 메리벨 등 럭셔리 스키장에서 알파인 스키나 노르딕 스키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목가적인 풍경의 마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남쪽으로는 연중 내내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는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을 가로질러 지중해로 뻗어있어 산맥을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알프스산맥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해발 4천810m의 고도를 자랑하는 몽블랑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2만 명의 산악인들이 몽블랑을 방문한다. 350km 길이의 하이킹 코스와 가벼운 트레킹 코스, 산책로 등 다양한 풍경과 거리, 소요 시간의 경로가 준비되어 있어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몽블랑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OTChamonix_MonicaDalmasso

3



1 몽블랑 발치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샤모니 마을 2 샤모니의 스키장
3 몽탕베르 기차를 타고 산을 오르며 몽블랑 풍경을 즐길 수 있다.

©OTChamonix_MarioColonel



2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인 '메르 드 글라스' 2 '에귀뒤미디'의 뷰포인트인 '르파당르비드'. 5면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다.

몽블랑 정상에서 8km 떨어진 '에귀뒤미디'는 몽블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발 3천842m 높이의 봉우리다. 케이블카를 타고 에귀뒤미디 전망대에 올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걸쳐진 알프스산맥을 360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르파당르비드'(Le Pas dans le Vide)는 5면이 유리로 둘러싸인 에귀뒤미디의 뷰 포인트 중 하나다. 마치 허공에 떠서 몽블랑을 발아래에 두고 감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몽블랑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싶다면 톱니바퀴 열차인 몽탕베르 기차를 타고 산을 올라보자. 올라가는 길에 우거진 숲과 골짜기, 그리고 알프스산맥의 여러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다. 20분가량 기차를 타고 해발 1천913m 지점에 닿으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인 '메르 드 글라스'를 만나게 된다. 총면적 40km², 길이 7km, 두께 200m의 이 거대 빙하는 레쇼 빙하와 제양 빙하가 합쳐져 형성된 것이다. 빙하 중앙에 깔려진 얼음 동굴, 빙하 역사박물관, 크리스털 갤러리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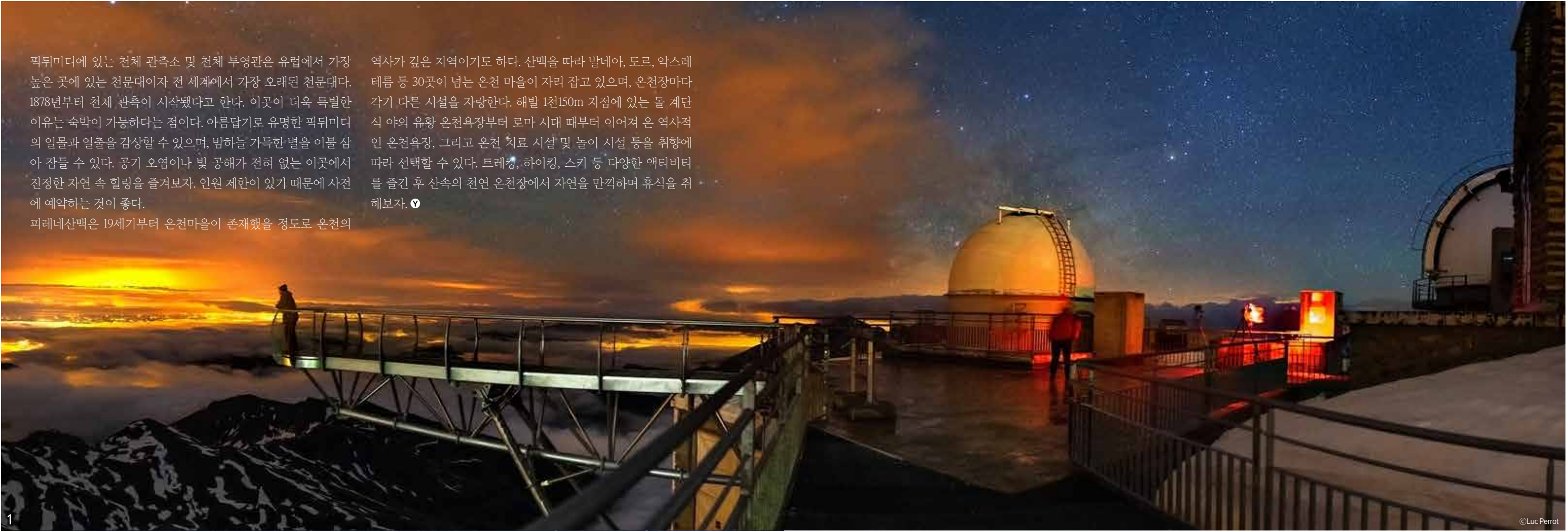
Les Pyrénées



1, 2 피레네산맥의 절경. 여름에는 2천500개가 넘는 호수를 따라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3 해발 2천877m 높이의 '픽 뒤 미디'에 오르면 피레네산맥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쏟아지는 별, 산속의 온천...피레네산맥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피레네산맥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길이 약 430km로 뻗어 있다. 면적 457km²의 피레네 지역 자연공원에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자연과 그리핀 독수리, 영양, 불곰 등의 야생 동식물을 만날 수 있다. 여름에는 2천500개가 넘는 호수를 따라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장, 크로스컨트리, 루지 등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픽뒤미디'는 스키 리조트 '라몽지'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해발 2천877m 높이의 봉우리다. 정상에 오르면 정류장과 연결된 전망대와 보기만 해도 짜릿한 공중 다리 위에서 피레네산맥을 파노라믹 뷰로 감상할 수 있다.



1
2

©Luc Perrot



©Paul Compère

1 일몰과 일출이 아름다운 '픽 뒤 미다'의 야경 2 '픽 뒤 미다'에는 천체관측소 및 천체투영관이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3 발네아 온천단지의 야외 온천

3



©HPTE, PIERRE BRUNET

픽뒤미디에 있는 천체 관측소 및 천체 투영관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문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1878년부터 천체 관측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픽뒤미디의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하늘 가득한 별을 이불 삼아 잠들 수 있다. 공기 오염이나 빛 공해가 전혀 없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연 속 힐링을 즐겨보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피레네산맥은 19세기부터 온천마을이 존재했을 정도로 온천의

역사가 깊은 지역이기도 하다. 산맥을 따라 발네아, 도르, 악스레테름 등 30곳이 넘는 온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온천장마다 각기 다른 시설을 자랑한다. 해발 1천150m 지점에 있는 돌 계단식 야외 유황 온천욕장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온천욕장, 그리고 온천 치료 시설 및 놀이 시설 등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트레킹, 하이킹, 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긴 후 산속의 천연 온천장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해보자. ▼